

귀농 체험 '함평 서울농장' 사업 좌초 위기

서울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 실습 농장인 '함평 서울농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농장은 전남도와 서울시가 도·농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함평군의 한 폐교에 설립해 서울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영농 교육과 실습, 농촌체험 공간이다.

3일 전남도와 함평군에 따르면 서울농장은 함평을 석성리에 있는 폐교인 옛 석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다. 부지와 농지 2만5855㎡, 건물 962㎡ 규모다.

귀농 희망자 15세대가 함께 머물며 사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시설을 갖춘다. 또 서울시민 1500명이 주말·주중 등을 이용해 농촌체험을 하는 교육시설, 영농실습시설, 농촌체험시설 등의 역할도 한다.

옛 석성초교 리모델링

전남도·서울시 상생사업

함평군 실습부지 명시 요구에

서울시 "수용 못해...사업 포기"

전남도는 서울농장의 성공적 조성과 정착을 위해 서울시·전남도 농업기술원·함평군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농장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작물별 농촌지도사를 파견해 재배기술 등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함평군이 공유재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실습농장부지 확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다.

함평군은 군 소유의 옛 석성초교 토지 6503㎡와 건물 979㎡의 감정평가를 마쳤다. 평가결과 4억2300만원이 산정됐다. 함평군은 여기에 실습부지 1만㎡ 이상 확보를 요구했다.

서울농장 조성 목적이 영농실습이기 때문에 실습부지 확보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1만㎡ 이상의 농장부지를 서울시가 취득 또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농장 조성에 필요한 실습부지 확보는 차후 문제다. 법률 검토 결과 폐교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서울시는 함평군에 "수용할 수 없어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포기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농장 조성' 문제가 전남도·서울시의 도농 상생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농·수산물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한 의원은 "서울시는 이 사업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확보한 예산을 이월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함평군이 부지 매매와 관련해 특약까지 거론하는 만측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는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석성초교 부지 매매는 서울시가 서울농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당초 계획한 실습부지 확보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



영광승마장 '그린승마존' 선정 영광승마장이 최근 한국마사회의 재활 힐링 승마시설인 '그린승마존'으로 선정됐다. 영광군과 한국마사회는 업무협약에서 지역민을 위한 재활·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소년 승마단 육성,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승마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해수온천랜드 수의계약 매각 추진

영광군은 수려한 경관과 노을을 자랑하는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한 '영광 해수온천랜드'를 매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임대기간이 만료돼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가액 73억5670만7000원(감정평가액 91억9588만3000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영광 해수온천랜드는 백수를 대신리 892번지의 31필지 4만1661㎡ 규모다. 해수온천탕 1동(지상 3층), 농업전시관 1동(지상 2층), 해수풀장 3개소, 지하수 관정 1개, 해수온천공(온도 27.1℃, 심도 600m, 취수량 509t/일), 놀이광장, 주차

장, 오페라극장, 숙박시설 부지(9210㎡) 등으로 조성돼 있다.

2010년 4월부터 개장해 2017년 3월까지 목욕장으로 임대 운영했으며, 이용객들로부터 온천수질이 좋아 피부 미용은 물론 아토피 등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수온천랜드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예정이어서 시너지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kskim@

럭셔리 요트로 가을 낭만 여행 즐기세요

신안군 요트 관광상품 출시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운행

해상투어 천개 섬 정취 만끽

신안군이 가을 낭만 여행 '럭셔리 요트 관광 상품'을 내놨다. 이 배를 타면 신안지역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를 둘러보면서 섬들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 가을 여행으로 제격이다.

신안군은 여름 휴가철이 끝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 금호고속(주)과 함께 가을 낭만 여행상품인 '럭셔리 요트 상품'을 출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2월 16억원(국비 9억원·군비 7억원)을 들여 55피트급 크루저(cruiser) 요트(사진) 한 척을 건조했다. 이후 1년5개월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여름 휴가철 요트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휴가철 요트 관광은 연일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9월부터는 가을 낭만 상품을 선보였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송정역을 경유, 압해도 선착장에서 타는 '세일요트'상품과 '송공산 힐링 트레킹' 상품이 결합, 벌써부터 예약이 쇄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투어(2시간30분)는 하루 두 차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돛을 직접 펼쳐보는 세일링 체험과 노래방 이용이 가능하다. 요트 베스트 상품인 '스테



이 상품'은 승선 확인 및 안전교육 후 요트 입실이 가능하며, 오후 2시까지 도착하면 서비스로 해상 투어까지 가능하다. 길이 16m(55피트급), 폭 12m이며, 승선 정원은 47명이다. 만바다 항해가 가능한 선실과 엔진을 갖춰 크루저 요트로 분류된다. 180마력 엔진 2기가 장착돼 있어 최고 10노트(시속 18km)로 운항할 수 있다. 선실은 침실·화장실·샤워실·주방·노래방 등으로 구성됐다.

요트 이름은 '천도천색호'로 '천 개의 섬, 천 개의 빛깔'이라는 뜻을 지녔다. 길이 16m(55피트급), 폭 12m이며, 승선 정원은 47명이다. 만바다 항해가 가능한 선실과 엔진을 갖춰 크루저 요트로 분류된다. 180마력 엔진 2기가 장착돼 있어 최고 10노트(시속 18km)로 운항

할 수 있다. 선실은 침실·화장실·샤워실·주방·노래방 등으로 구성됐다. 객실에 들어 서면 온돌로 된 넓은 거실에 노래와 영화감상을 할 수 있다. 좌·우측으로 내려가면 침실과 샤워실, 주방이 있어 각종 모임과 이벤트에 안성맞춤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0여 개의 섬마다 각각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섬을 연계해 해양레포츠 산업은 신안군만의 강점"이라며 "세일요트를 추가 건조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일요트 예약은 버스한바퀴 홈페이지(www.kumhoaround.com)와 전용 콜센터(062-360-8502)로 하면 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동춘서커스진흥원

'NEW 흥길동' 공연

무안군 9일 승달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무안군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동춘서커스진흥원의 테마서커스 'NEW 흥길동' 공연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무안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며 북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7년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국내 최고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를 초청해 초대형 아트서커스인 'NEW 흥길동' 공연을 펼친다.

변장의 달인 현대판 흥길동의 스토리와 함께 14~15개 스틸 넘치는 서커스 공연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폭소를 가미한 곡예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동춘서커스는 볼거리가 풍족하지 않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며 90여 년 동안 연중무휴로 한결같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 우리나라 대중예술의 모태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며 배삼룡, 서영춘 등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켰다.

공연 입장료는 전 좌석 3000원이며, 사전 예매를 받는다. 예약 문의,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061-450-4090. /무안=임동현기자 jdh@



'친환경농업 1번지' 함평군 을 첫 유기농 벼 수확

함평군은 지난달 31일 대동면 옥동마을 유기농친환경농업단지에서 올해 첫 유기농 벼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807ha 규모인 유기농업 면적을 연말까지 900ha로 확대하기로 하고, 14개 사업에 89억9000만원을 투입

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은 유기농 인증 면적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넓다"며 "친환경농업 1번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

<h3>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 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h3>법률경매 (주)대신경매</h3> <p>노후대비 최적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2) 동구 금남로 총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억 → 최저가 175억(특A급)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7) 충남 흥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종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8) 전주시 완산구 상가건물 (노후대비상가) 감정가 13억5천 → 최저가 9억4천 <p>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p> <p>경매교육</p> <p>매주월요일 개강</p> <p>062-382-5500</p>
--	--	---	--